

<서 평>

제주 조랑말 이해의 길잡이

- 강민수의 『제주 조랑말』(1999, 제주대학교출판부) -

고 용*

현재 한국 마(馬)연구회 회장으로 있는 제주대 강민수 교수가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그 동안의 농장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종합하여 엮은 『제주 조랑말』이 최근 출간되었다. 강민수 교수가 오로지 말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하고자 지금까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여 온 과정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온 서평자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말에 관한 저서는 다른 연구자들에 의하여 간간이 출간되어 왔었다. 그러나, 그 동안 캐나다와 일본을 오가며 말에 관한 모든 것을 연구하여 온 저자는 우리 나라 고유의 문화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1998년 『제주 말(馬) 연구』 저서를 발간한 후 다른 각도에서 이번에는 천연기념물 제347호인 제주 조랑말에 대하여 일반적인 것은 물론 전문적인 내용까지 비전문가들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하여 각론(各論) 형식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인간과 밀접한 연관을 맺어온 말은 옛날과는 달리 근래에는 스포츠와 레저 쪽으로 활용되는 등 용도가 다양화되고 있다. 이는 산업의 발달과 그로 인한 소득의 증대로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과정의 부산물인데, 본서의 출간은 시기적으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충족할 수 있는 심층적인 정보를 총망라하여 편집되었다. 강민수 교수는 저서를 통해 『제주 조랑말』의 특성을 재조명하고 우리 문화재가 세계적 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여 근래에 일고 있

* 고려대 교수

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이것을 통하여 응집하고자 하고 있다.

『제주 조랑말』은 크게 말에 관한 일반적 상식, 제주 조랑말의 특성 그리고 제주 조랑말의 활용을 통한 발전방향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총14장으로 나뉘어 기술되어 있다. 제일 먼저 1장에서는 좀처럼 손쉽게 찾아볼 수 없는 자료들을 모아 말의 생태학적 위치, 진화과정 그리고 세계 각국의 말 품종들을 간결하면서도 논리적인 어귀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림을 곁들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다. 특히, 馬科의 진화에 관한 그림은 지역적, 시대적 그리고 형태적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많은 정보가 함축되어 들어있는 매우 독창성이 있는 설명의 일부분이라 사료된다.

제2장부터 제13장까지는 제주 조랑말을 여러 각도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한 각론이다. 고대 중국과 고려시대로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주 조랑말의 사육유래 그리고 방대한 자료를 표로 간결하게 요약하여 말의 사육실태를 정리한 제2장은 그 동안 강민수 교수가 말에 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쏟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단편이라 생각된다. 제3장부터 제주 조랑말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외모, 모색, 백징(白徵), 먼선(而旋), 유전자 구성 등의 기초적인 지식을 자세한 설명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개론적으로 서술될 수 있으나 본 저서에서는 용어들을 쉽게 설명함으로써 제주마의 우수성과 독특함을 알리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엿보이고 있다. 또한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조랑말의 번식을 포함한 성장발달에 관하여 국내외 연구자료와 통계적 수치 등의 여러 자료를 인용하여 자세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나열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제주 조랑말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육종적인 측면에서 부위별, 연령별에 따른 조랑말의 심사 규정에 관하여 쉽게 서술하고 있다. 한편, 축산학에 있어서 최근 많은 연구로 급격한 발달을 보이고 있는 동물행동학의 관점에서 강민수 교수는 제7장에서는 말의 학습능력, 제8장에서는 조랑말의 행동 그리고 제9장에서는 제주 조랑말의 보디랭귀지(body language)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다. 특히 제8장에서는 말의 행동을 개체행동, 집단행동, 방목행동 그리고 악벽 등으로 구분하여 그 동안의 많은 관찰과 연

구에 의한 자료들을 잘 정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주 조랑말』은 학문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제주馬에 관심이 있는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하나의 지침서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연계하여 제9장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말의 행동학적 언어를 신체부위별로 아주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본서의 학문적, 실용적 가치를 증폭시키고 있다. 제10장에서는 제주 조랑말의 생리에 대하여 신체부위별로 실제적인 경우를 기술하면서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주 조랑말의 코와 눈은 어느 정도 좋은가? 어느 정도 자는가? 어떻게 먹으며 어떤 사회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애정 표현을 하는가? 등등 상식적으로도 궁금한 면을 단원별로 요약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제주 조랑말의 보존을 위하여 상당히 중요한 항목중의 하나인 사육관리에 관하여 환경적, 관리적, 영양적 관점에서 말의 상태에 따른 분류를 기준으로 제11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12장에서는 제주 조랑말의 걸음 걸이에 대하여 상세한 그림을 통하여 이해를 증진하고자 노력하였고, 제13장에서는 한때 멸종의 위기에까지 처한 바 있는 제주 조랑말이 가축 중에서 진도 진돗개, 연산 오골계에 이어 세 번째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까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강민수 교수를 비롯한 제주대학 교수들의 학술조사 결과와 현재의 제주도 사육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14장에서는 제주 조랑말을 현재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방안들이 여러 각도에서 조명되어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면, 스포츠용으로서의 제주 조랑말 승마, 레저용으로서의 경마, 전통마에 공연 등이 제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주요 산업으로 기대를 모으는 생명공학을 이용한 형질전환모델 동물로서의 제주 조랑말 활용도 인상 깊다. 그리고, 선진 외국에서의 최근 경향에 발맞추어 제주 조랑말을 이용한 인간의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증진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도 조랑말은 한 몫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자는 예견하고 있다. 또, 제주 조랑말의 고기와 젖의 성분을 근거로 우수한 대일 수출 품목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하여도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장기간의 치밀한 계획과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원동력의 산실로서 제주 말(馬) 박물관

과 연구소의 개설도 또한 발전적인 활용방안으로 사료되고 있다.

끝으로 본서는 말(馬) 관련 속담을 실었는데 흔히 볼 수 없는 것들로서 말이 예로부터 얼마나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뿌리깊게 자리하며 우리와 호흡을 같이 하고 왔었는지를 알 수 있는 본보기들이었다.

이상으로 『제주 조랑말』에 실려있는 단원별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살펴 보았다. 본서를 읽으면서 서평자는 저자 강민수 교수가 본서를 출간하기까지 제주 조랑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책 속에 펼쳐있는 여러 자료들을 통하여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음은 물론 강민수 교수의 업적에 경의를 표하고 싶을 뿐이다. 일반적인 말(馬)과 비교하여 제주 조랑말의 외형적 특성으로부터 내면적 생리특성까지 자세히 기술한 본서는 말(馬)을 학문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기본지식은 물론 전문지식까지의 방대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필독서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말(馬)에 대한 저서는 다른 학자들에 의하여 이전에 출간이 된 적이 있었으나 『제주 조랑말』에서는 이전의 저서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진, 그림 그리고 통계적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어 본서의 독창성과 다양함에 많은 의의를 부여하고 싶다. 그러나, 한정된 지면에 방대한 자료를 실코자 했던 저자의 의도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설명이 부족하거나 혹은 외국의 현실과 비교하여 제주 조랑말의 정확한 현주소를 분석하지 못한 점이 조금은 부족하여 옥의 티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기술되어 있는 제주 조랑말의 미래지향적 활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심층적인 분석은 비단 조랑말에 국한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가축의 발전방향에도 응용될 수 있는 것들로서 강민수 교수의 굵힐 줄 모르는 제주 조랑말에 대한 사랑의 결실을 앞으로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더욱 발전된 제주 조랑말의 미래를 위해서는 강민수 교수 혼자만이 아니라 서평자를 비롯한 후학들은 물론 말(馬)을 비롯한 가축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여 서로 힘을 합칠 때에 더 빠르고 많은 발전이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남들보다 앞서가며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외롭고도 힘든 연구활동을 하는 강민수 교수의 건강을 기원하며, 제주 조랑말이 강민수 교수의 헌신적인 연구와 봉사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명성을 얻는 시기가 조만간에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